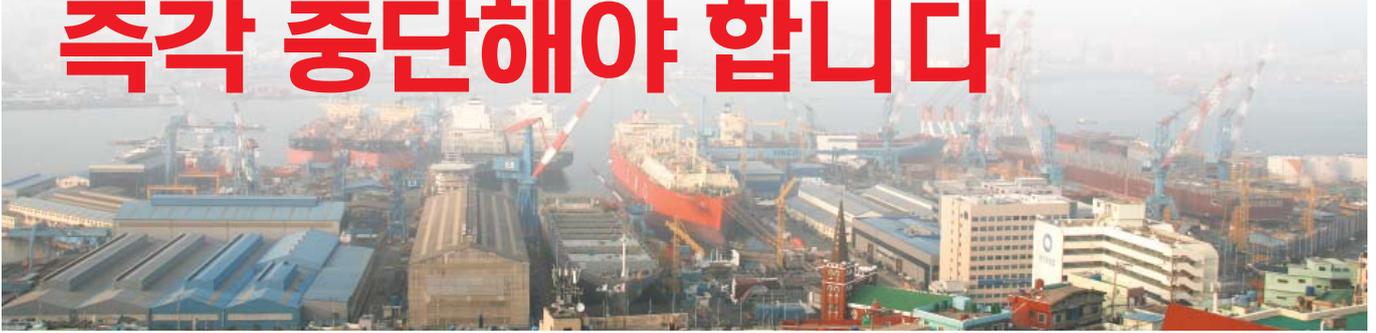


72년의 역사, 조선산업과 부산경제의 주춧돌

한진중공업(회장 조남호)은 노동자 불법 집단해고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 |
|----------------------------|---------------------|
| 조남호 회장... 배당금 120억원 | (2008년) |
| 당기순이익 ... 1056억원 | (2009년 9월 30일 현재) |
| 이익잉여금 ... 1686억원 | (2009년 9월 30일 현재) |
| 가동율 - 특수선 110%(14,857 D/T) | 신조선 86.6%(653천 G/T) |

2009년 12월, 한진중공업에서 날벼락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직원 1000명 감원, 기술본부 분사”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20여년 동안 해마다 흑자를 이어오던 한진중공업에서 도저히 믿기지 않은 ‘정리해고’가 노동자들에게는 죽음과 같은 청천벽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과 영도경제를 지탱해오던 한진중공업을 지켜오던 노동자를 하루 아침에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로 길거리에 내몰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진중공업(조선 부문, 부산 영도구 봉래동)은 1937년 현재 자리에서 ‘朝鮮중공업(주)’으로 출발하여 한국조선산업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72년 동안 노동자들은 험악한 산재사고와 7천도가 넘는 용접, 절단화염을 견디며 한진중공업을 견실히 성장시켜왔습니다.

불황 이긴 업종들 행복한 연말... “지금만 같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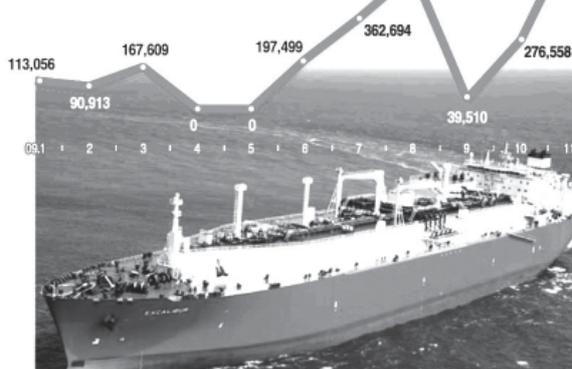
4분기 수주 릴레이 ... 새해도 ‘맑음’



조선업계

조선업계가 올 4·4분기 들어 밀레이 수주에 성공하고 신규사업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올 한 해 급격히 위축됐던 선박발주세가 지난 10월부터 어느 정도 회복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풍파발전, 주택건설, 조선소 설립 컨설팅 등 새롭게 진출한 사업 분야의 성과도 본격화하고 있어 내년 전망을 밝게 한다. 25일 조선-해운 시장조사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국내

한국 조선업계 월별 수주 추이
(단위: CGT)
자료:클락슨



업계를 실적중 절반이상 집중
대우조선 83%·STX는 60%나
풍력발전·주택건설·컨설팅 등
신규진출 분야도 성과 잇따라

‘서울경제’ 신문. 2009. 12. 26(토)

수주물량이 없어 정리해고? 수주담당인 조원국 상무가 (33세. 조남호 회장의 장남) 책임져야 합니다



회사는 수주물량이 없다며 한진중공업 노동자 30%인 1000여명을 정리해고 한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최근 10년 동안 427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2009년 9월까지만 해도 1056억원의 당기순이익과 1686억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주물량이 없다면 조남호회장의 장남인 조원국상무(수주담당)가 책임져야 합니다.

조남호 회장은 2009년 120억원의 배당금을 챙겼습니다. 수주도 못한 조원국상무는 2009년에 9개월동안 1억 6천 9백만원의 봉급을 챙겨갔습니다.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해서 엄청난 이익을 창출했는데, 왜 죽음과 같은 해고를 당해야합니까?

한진중공업은 72년 동안 조선소를 성장시킨 노동자의 불법해고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